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른 대인지각에서의 편파

김재숙·김희숙[†]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The Experimental Bias in Person Perception as Results of the Method of Developments Stimulus

Jae-Sook Kim and Hee-Sook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2. 11. 22. 접수 : 2004. 1. 1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dentify the experimental bias which could appear person perception as results of development methods (2) to find out the most desirable method in developments of stimulus. The research was a quasi experiment and the subjects were 358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by convenient sampling. The experimental instruments consisted of a set of stimulus and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of 7-point bi-polar adjectiv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NOVA(analysis of variance),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eveloping methods of stimulus(live person, photography of real person, 2 kinds of black and white line drawing, 2 kinds of color draw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five factors which were potency, sociality, appearance, evaluation, activity impressional dimensions emerged to account for the methods of development of stimulus. Second, the methods of development of stimulus had significant effects on potency, sociality, appearance, activity factors

In sociality factors, the impression of photographic stimulus was the closest to the live person's impression. However in the appearance and activity impressions,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between live person and other developing stimulus. In the potency impression, black and white line-drawing gave the highest impressional bias. In the sociability and appearance impressions, color-drawing stimulus gave the highest impressional bias. Result: On conclusion the developments of stimulus can effect on stimulus person's impressions and these effects can produce experimental biases, the photographic stimulus gave the least impressional bias. The study shows that photography of real person will produce minimize measurement error.

Key words: experimental bias(실험적 편파), The methods developing stimulus(자극물의 표현방법).

I. 서론

그동안 대인지각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의복, 지각자, 착용자, 상황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한편 김재숙 등¹⁾은 같은 의

[†] 교신저자 E-mail : hisukhome@hanmail.net

1) 김재숙 외, "착용자 인상효과와 시간적 안정성," 복식문화연구 10권 1호(2002), pp. 28-36.

복 착용자의 자극물을 가지고 측정시기에 따른 인상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김희정 등²⁾은 제시방법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Whisney 등³⁾은 사진과 선 그림으로 패션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같은 의복 자극물일지라도 측정시기, 제시방법, 자극물의 구성에 따라 의복이미지와 인상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김희정 등⁴⁾의 연구와 Whisney 등⁵⁾의 연구는 제시방법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측정하지 않았고, 의복착용자의 얼굴부분을 제외한 순수 의복효과만을 측정하는 연구였다. 따라서 다양한 제시방법에 따른 인상효과에 대한 편파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그 동안 인상형성 연구에 있어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의복변인, 착용자 변인, 지각자 변인, 상황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의복착용자의 자극물의 표현방법과 제시방법에 따라 인상형성 결과가 다양한 것을 볼 때, 가외 변인의 적절한 통제실패가 연구결과에 편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실험방법을 연구변인으로 한 인상형성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상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복, 착용자, 지각자, 상황 변인 외에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의복착용자의 외모, 상황 변인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복자극물의 표현방법이 인상효과에 어떠한 편파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자극물의 표현방법이 착용자의 인상효과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구방법의 제시로서, 대인지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파에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인지각 과정에서의 편파

1) 동기적 편파(Motivational bias)

동기적 편파는 지각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건 또는 타인에게 돌리는 편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기적 편파에서는 자아편파, 두영, 기타 동기편파들이 있다.

지각자가 자존감 때문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실패한 결과보다는 성공한 결과의 원인만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자아편파라고 부른다. 두영은 지각되는 특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이 바라지 않은 특질이 인지되는 것에 대한 방어기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편파의 원인은 인식적 균형을 유지하며 정의에 대한 감정을 행동적 인과관계에 돌리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⁶⁾.

2) 인지적 편파(Cognitive bias)

인지적 편파는 지각자가 지각대상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각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편파이며 정보를 단순화 하는 범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인지적 편파에서는 관계적 편파, 정보처리과정 편파와 대표성 휴리스틱(Heuristics), 돌출 효과 등이 있다.

관계적 편파는 대인지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편파로서 독립된 사건, 사물, 특성을 서로 관련된 것으로 짝지음으로써 정보의 복잡성을 단순화 시키려는 경향에 의하여 나타난다. 귀인과정에서 지각자는 행위자의 부정적 지각단서에 대해 행위자의 기질적 원인으로 지각하나 자신의 부정적 행동은 상황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유리하게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정보처리과정편파라고 한다. 휴리스틱

2) 김희정 외, "의복자극물과 제시 방법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1993), pp. 428-435.

3) A. J. Whisney, G. Winakor and L. Wolins, "Fashion preference : Drawings versus photograph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79), pp. 138-150.

4) 김희정 외, "의복자극물과 제시 방법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1993), pp. 428-435.

5) A. J. Whisney, G. Winakor and L. Wolins, "Fashion preference : Drawings versus photograph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79), pp. 138-150.

6) D. J. Schneider, A. H. Hastorf and P. C. Ellworth, *Person perception*(2nd ed.), (Mass., Addison-Wesley, 1979), pp. 226-229.

(heuristics)은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비공식적인 일상의 판단에 있어서 지각자는 복잡한 형식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단순화 시켜 도식적 처리를 하거나 빠른 해결전략을 사용한다⁷⁾. 특히 인기, 명성, 최근 경험, 특징 같은 요소의 지각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범주화를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 이용하도록 작용한다⁸⁾. 돌출효과(Saliency effects)는 여러 가지 자극이나 단서 중에서 눈에 띄거나 생생한 것, 부정적인 단서가 특별한 관심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돌출 단서가 놓여 있는 배경과 비교 판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지적 편파이다⁹⁾.

2. 자극물의 표현방법과 관련된 의복행동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의 표현방법은 실물 사진, 흑백 선 그림(black & white line-drawing), 칼라 그림(color-drawing), 실물이 출현한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그래픽 및 CAD, 패션잡지 및 카탈로그, 실물이

직접 피험자에게 출현, 그리고 인대 형태로 표현되었다. 1977년 후반부터 2001년까지의 국내외 논문 중에서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에 대해 자극물 제작방법이 설명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외국 연구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실물 사진과 칼라그림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실물 사진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흑백 선 그림, 칼라그림, 실물사진을 주로 사용하였고, 실물사진은 1980년대 초와 199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고, 칼라그림은 1990년대, 흑백 선 그림은 1990년대와 현재까지 사용되는 자극물의 형태였다.

한편 Damhorst¹⁰⁾는 인상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의복에 의해 전달되는 인상차원을 분석한 결과, 평가적(호오, 화친: 특성, 사회성, 정서), 역능적(힘, 능력, 지성), 역동적(활동성, 자아통제, 자극성), 질적 사고 차원으로 범주화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진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표 1> 자극물 제작형태의 전체적인 경향(1977년~2001년)

자극물 형태	년도						계 (논문수)	%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전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전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전반		
실물사진	2	6	2	5	7		22	42
흑백 선 그림		2		3	4	2	11	21
칼라그림		1		2	3		6	11
실물출현			1			1	2	4
비디오테이프		2					2	4
CAD				4			4	8
패션잡지		1			1		2	4
인대				1	1	1	3	6
총계							52	100

7) A. Tversky and D. Kahneman,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 Science* Vol. 185(1971), pp. 1124-1131.

8)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1995).

9) D. J. Schneider, A. H. Hastorf and P. C. Ellworth, *Person perception(2nd ed.)* (Mass., Addison-Wesley, 1979). pp. 229-236.

10) M. L. Damhorst, "In search of common thread :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90), pp. 1-12.

인상효과 사이의 유의한 인과 관계를 자극물의 표현 방법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 3개의 표(표 2, 표 7 표 9)에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Damhorst¹¹⁾에 의해 분석된 인상차원들과 외모·현시성 인상차원을 부가하여 인상차원 경향을 설명하였다. <표 2>를 살펴 볼 때, 실물사진은 평가성 인상이 가장 많이 평가되었고, 다음은 역능성, 역동성 인상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 7>의 흑백 선 그림은 평가성 인상이 가장 많이 평가되었고, 다음이 화려, 선정성 등 외모·현시성에 속하는 인상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 9>의 칼라그림은 평가성 인상이 가장 많이 평가되었고, 역능성 인상과 외모·현시성 인상이 다음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극물의 표현 방법이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극물의 표현 방법에 따른 편파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은 자극물의 표현방법의 종류에 따라 자극물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인상차원들과 자극물의 제작형태를 살펴보았다.

1) 실물사진

실물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실물사진 자극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실물사진은 다양한 독립변인들의 경향을 관찰하기 위해 한 명의 모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자극물은 모델의 외형적 특징(얼굴표정, 화장정도, 액세서리 착용여부, 자세: 정면, 측면), 사진현상방법(칼라, 흑백), 사진의 배경(독립변인 중에 상황이 포함된 것은 제외되었음), 의복색상통제 정도 등에서 연구자마다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실물사진의 자극물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실물사진이 착용자의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또한 <표 3> ~ <표 6>는 실물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자극물의 제작형태를 분류하였다. 실물사진의 제작형태는 사진의 배경 유무, 사진현상방법, 착용자의 자세, 액세서리 착용 유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물사진의 제작 형태를 살펴볼 때 외현적인 특징인 얼굴표정, 액세서리 착용 유무, 착용자의 자세와 사진의 배경, 사진의 현상방법, 의복의 색상 통제 정도 등의 일관성 있는 자극물 제작방법을 위해 가

<표 2> 실물사진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인상차원 분류

연구자	독립변인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상요인	연구자	독립변인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상요인
방희선 등(1999)	의복스타일, 성별	자신감, 세련됨, 성실함, 학업 우수성	전호경 등(1995)	의복스타일	업무수행, 능력, 호의도
이항미 등(1998)	격식차림, 의복색, 상황	평가, 사교, 외모·매력, 역동	고애란 등(1990)	의복색, 신체노출	정숙성 (품위, 외향성)
김인숙 등(1995)	신체 노출	외모·매력 선호, 예의 정숙성, 성적 자극성, 개성	Thurston 등(1990)	유행성, 의복범주, 체형, 나이	역능, 평가
박성은 등(1995)	적절성, 관찰자	외모, 성격, 능력, 활동	Workman 등 (1989)	의복 적절성	역능, 평가, 외모·현시
문영보 등(1991)	의복스타일 얼굴	지적, 사회적, 활동적	Lennon 등(1990)	의복 매력성	역능, 사교
이인자 등(1982)	의복유형, 인물	귀여운, 활동적, 사교적, 활동적	Buckley 등(1983)	의복의 유사성	평가, 외모, 현시

11) M. L. Damhorst, "In search of common thread :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90), pp. 1-12.

<표 3> 사진의 배경 유무

배경	선행연구
배경있음 ※	김인숙 등(1994), 이향미 등(1995), Thurston 등(1990)
배경없음	이인자 등(1982), 이선경 등(1995), 고에란 등(1995), 전호경 등(1998), 방희선 등(1999), 한미숙 등(1995), 이미정 등(1997), 문영보(1991), Buckley 등(1981), Buckley(1983), Johnson 등(1977)

※ 상황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연구는 제외하였음.

<표 4> 사진 현상방법

사진색상	선행연구
칼라	고에란(1990), 김인숙 등(1994), 이향미 등(1995), 이인자 등(1982), 이선경 등(1995), 고에란 등(1995), 전호경 등(1998), 방희선 등(1999), 한미숙 등(1995), 이미정 등(1997), 문영보(1991), Buckley 등(1981), Buckley(1983), Forsythe 등(1984)
흑백	Workman 등(1989), Thurston 등(1990), Lapitsky 등(1981), Johnson 등(1977)

<표 5> 착용자의 자세

자세	선행연구
정 자세	이선경 등(1995)
약간 측면의 정 자세	방희선 등(1999), 전호경 등(1998), Forsythe 등(1984)
팔을 앞으로 모은 정 자세	박성은 등(1995)
팔을 옆구리에 올린 측면 자세	이인자 등(1982), Thurston 등(1990)
걸는 자세	김인숙 등(1994)

외변인의 통제가 용이하여 실물에 가까운 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을 알 수 있다.

2) 흑백 선 그림(Black & white line-drawing)

<표 7>은 흑백 선 그림을 자극물로 사용한 선형 연구의 인상차원을 분류한 결과이다.

<표 6> 착용자의 액세서리

액세서리 착용여부	선행연구
액세서리 사용	Lennon 등(1990), Buckley (1983),
액세서리 생략	김인숙 등(1994), 고에란 등(1995), 이인자 등(1982), 이선경 등(1995), 전호경 등(1998), 방희선 등(1999), 한미숙 등(1995), 이미정 등(1997), 문영보(1991), Buckley 등(1981), Johnson 등(1977), Forsythe(1984), Thurston 등(1990)

<표 7> 흑백 선 그림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인상차원 분류

연구자	독립변인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상
류숙희 등(2001)	의복스타일	적극적·소극적, 여성적·남성적
이혜숙 등(1999)	복식무늬	품위성, 평가성, 현시성
강혜원 등(1990)	의복유형, 상황	평가, 능력, 품위, 동조, 친화, 화려, 검소
강혜원 등(1991)	한복디자인, 의복배색	평가, 품위, 현대성, 실용성, 사회성, 현대성
이주현 등(1995)	디자인, 의복색	품위, 주위취중성, 평가, 매력, 깔끔함
조은영 등(1995)	신체노출	품위, 선정성, 매력, 개성

선행연구들의 흑백 선 그림의 제작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얼굴부분에서 다양했다. 얼굴이 있거나 없는 형태, 얼굴이 있어도 눈, 코, 입이 있거나 없는 형태,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렸어도 거의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있었다. 머리부분에서는 얼굴부분보다는 다양하지는 않지만 머리부분의 색을 흑백으로 처리한 형태와 단순히 라인으로만 그린 형태가 있었고, 또한 머리부분을 전부 생략한 형태가 있었다. 자극물의 등신크기와 스타일기법은 다양하였으며, 흑백 선 그림의 등신크기가 연구자마다 차이가 났으며, 선의 기법에서도 선의 강약(굵은 선, 가는 선, 명암처리 등)과 착용자의 자세가 다양하였

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흑백 선 그림은 도식화적 묘사와 사실적 묘사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었다. 도식화적 묘사는 실제인물의 등신크기보다 큰 표현방법을 의미하고, 사실적 묘사는 실제인물의 등신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표현한 방법을 의미한다.

〈표 8〉은 흑백 선 그림을 자극물로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제작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흑백 선 그림의 제작형태를 볼 때, 흑백 선 그림은 자극물 제작이 용이하나 실물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칼라그림(color-drawing)

칼라 그림이 착용자의 인상에 유의하게 미친 영향은 〈표 9〉와 같았다.

칼라그림의 경우, 머리와 발의 부분처리, 얼굴표정, 자세, 의복 색, 그리고 배경 부분에서 연구자마다 통제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었다. 칼라그림을 사용한 선행 연구들의 자극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얼굴 부분에서 얼굴이 그려진 형태와 얼굴이 생략된 형태가 있었으며, 사진이나 슬라이드로 제작했을 때 전반적인 사진의 색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연구자의 스타일에 따라 일러스트의 비율이 다르거나 착용자의 자세에서 통제가 잘 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표 8〉 흑백 선 그림(Black & whiteline drawing)의 제작형태

제작형태	얼굴형태		선행연구
도식화적 묘사	얼굴 전체를 그림		조은영 등(1995), Minshall 등(1982)
	얼굴의 반을 그림		류숙희 등(2001), 김보연 등(2001)
	얼굴을 생략		정삼호 등(1991)
사실적 묘사	얼굴 전체를 그림	눈, 코, 입을 그림	이혜숙(1999)
		눈, 코, 입을 생략	강혜원 등(1990), 강혜원 등(1991), 이주현 등(1995)
	얼굴 전체를 생략		Whisney 등(1979)

〈표 9〉 칼라그림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인상차원 분류

연구자	독립변인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상
김재숙 등(2002)	의복범주, 유행, 체형	역능성, 사교성, 평가성, 외모
김재숙(1991)	의복범주, 유행, 나이	사교성, 평가성, 외모, 화친, 호오
김재숙 등(1992)	의복범주, 유행, 체형	역능성, 사교성, 평가성, 외모
남미우 등(1996)	상황, 의복유형, 의복색, 관찰자	평가성, 활동성, 독특성
남미우 등(1990)	상황, 의복유형, 의복색	평가, 활동성, 독특성
남미우 등(1997)	머리모양, 의복 유형	순수성, 경직성, 능력, 외모, 독특성
Lennon 등(1984)	의복유형, 헤어, 안경착용 유무	사회성, 지성, 호오
Paek 등(1986)	의복스타일	역능성, 평가성, 외모, 현시성

다음의 〈표 10〉은 칼라그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자극물 제작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4) 실물출현

실물이 직접 실험현장에 출현한 인상형성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물은 다른 자극물의 형태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사실적인 인상효과 측정방법이며

〈표 10〉 칼라그림(color drawing)의 제작형태

제작형태	얼굴	선행연구
얼굴을 포함한 전신그림	눈, 코, 입 그림	Lennon 등(1984), 남미우 등(1990), 남미우 등(1996), 남미우 등(1997), 김재숙(1991), 김재숙 등(1992), 김재숙 등(2002)
	눈, 코, 입 생략	Winaker 등(1987)
얼굴을 생략한 전신그림		Paek 등(1986)

타당성 높은 방법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가 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자극물의 표현방법(실물, 실물 사진, 흑백 선 그림 1, 흑백 선 그림 2, 칼라그림 1, 칼라그림 2)은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용어의 작업정의

1) 자극물의 표현방법 : 자극물의 제작형태로서 흑백 선 그림(Black & white line-drawing), 칼라그림(color-drawing), 실물사진, 실물을 의미

2) 실물 : 본 연구의 실험에 직접 출현한 실제 실험 모델을 의미하며, 상·하 동색의 회색 투피스를 착용

3) 실물사진 : 2)의 실물을 중형카메라로 촬영하여 5"×7"로 현상한 사진을 의미

4) 흑백 선 그림 : 2)의 실제모델 사진을 기초로 그린 흑백 선 그림을 의미

5) 칼라 그림 : 3)의 흑백 선 그림을 기초로 실제 모델의 의복색을 입힌 형태를 의미

3. 측정도구

예비실험은 의류학과를 제외한 충남대학교 남녀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0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실제 자극물을 보고 70문항, 7점 척도의 의미미분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70개의 문항에 대한 7점 척도의 의미미분척도 결과를 SPSS 패키지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에 의해 분석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은 고유값이 1.0 미만인 것과 요인 부하량이 .4 이하인 것을 제외시킨 총 62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항의 수가 많고, 문항간에 상관관계가 너무 높은 문항이 있어 이를 제외시킨 후 다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 결과 고유값이 1.0 이하인 것과, 요인 부하량이 .5이하인 것을 제외한 총 49개의 문항이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마찬가지로 문항간에 상

관관계가 너무 높은 문항을 제거한 후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에 의해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4개의 문항이 총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6문항, 요인 2는 5문항, 요인 3은 7문항, 요인 4는 4문항, 요인 5는 2문항으로, 총 24문항을 종속변인을 위한 측정도구로 결정되었다.

4. 모델선정

본 연구의 실물은 한 명이었으며, 착용자 모델 선정을 위해 20여명의 학생들을 촬영한 후, 의류학 전문가 집단에 의해 촬영된 사진들 중에서 얼굴인상 및 체형이 가장 평범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 한 명을 선택하였다. 또한 먼저 착용자의 의복을 결정하기 위해 의류학과 전공자들과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과 논의하였으며 의복 색 변인을 통제하고자 상·하 동색(중채도, 중명도의 회색)의 투피스 한 벌을 선택하였다. 의복 선택은 여러 가지 의복 디자인 중에서 눈에 많이 띄지 않는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하고자 실제로 모델이 여러 벌의 의복을 입고 중형카메라로 촬영한 후 현상된 사진을 보고 전문가 집단과 논의하여 가장 평범한 의복을 선택하였다.

5. 자극물의 표현방법

자극물의 제작을 위해 먼저 선정된 모델에게 선택한 투피스를 착용시켜 여러 번 중형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5"×7"의 크기로 현상된 사진 중에서 가장 잘 현상된 사진 하나를 선택하여 본 연구의 실물 사진 자극물로 채택하였다. 다음에는 이 실물 사진을 기초로 두 가지 형태의 흑백 선 그림을 제작하였는데, 첫 번째는 실물과 같은 등신의 흑백 선 그림(흑백 선 그림 1)을 제작하였고, 두 번째는 실물의 실제등신보다 큰(10등신) 도식화된 흑백 선 그림(흑백 선 그림 2)을 제작하였다. 다음에는 칼라그림(color-drawing)을 두 가지 형태로 제작하였는데, 위에서 그렸던 흑백 선 그림 두 가지 위에 실제모델의 의복 색상과 비슷한 회색을 입혀 실제등신의 칼라그림(칼라 그림 1)과 실제 등신보다 큰 도식화된 칼라그림(칼라 그림 2), 두 가지가 제작되었다.

따라서 자극물의 표현방법은 실물, 실물사진, 두 가지 형태의 흑백 선 그림과 두 가지 형태의 칼라그

럼으로써 총 6가지 형태의 자극물이 제작되었다. 동일한 실험 조건을 위해 칼라그림의 의복의 색상과 모든 착용자의 자세는 한 가지로 통제되었다(표 11).

6. 연구대상 및 실험 절차

연구대상은 충남대, 공주대, 건양대, 그리고 청양도립대 남·녀 대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되었다. 피험자들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하므로 가의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연구 실험 조사는 2001년 12월 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한 명의 보조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남·녀 대학생은 주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설문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작성된 즉시 회수하도록 하였다. 피험자 및 자극물 배치는 실물, 실물사진, 흑백 선 그림 1, 흑백 선 그림 2, 칼라그림 1, 칼라그림 2의 총 6가지 형태의 자극물에 대하여 각 자극물마다 남녀 60명씩을 한 집단으로 하여 한 피험자가 한 가지 자극물만 평가하도록 하는 피험자 간 설계를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패키지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

변량 분석과 Scheffe의 다범위 검증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험결과 및 논의

1. 자극물의 인상차원

본 연구에서는 인상형성과정에서 자극물의 표현 방법과 제시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극물의 인상효과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된 의미비분 척도를 주성분 분석에 의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명변량이 1.0이상 되는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자극물의 인상차원은 역능성, 사교성, 현시성, 평가성, 그리고 활동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로 검증하였으며($\alpha = .827$), 전체 설명변량 비율은 68.6%이었다(표 12).

요인 1은 역능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4.47이고 18.6%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냈다. 요인 2는 사교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3.66이고 15.2%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냈다. 요인 3은 현시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3.36이고 14.0%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냈다. 요인 4는 평가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2.99이고 12.5%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냈다. 요인 5는 활동성 차원으로 설명변량은 1.98이고 8.3%의 설명변량 비율을 나타냈다.

각 요인별 특징을 살펴보면 역능성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고 독립적이며 능력 있음을 의미하며, 사교성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이해심 있고 이타심 있으며 다정한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세련됐고 매력적이며 현대적인 것으로, 평가성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예의 바르고 정숙하며 근면한 것으로, 활동성 요인에서는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더 활발하고 활기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른 인상효과

가설 검증을 위해 자극물의 표현 방법을 독립변인으로, 자극물의 인상효과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극물의 표현 방법의 영향력이 인상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과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극물의 표현 방법은 평가성을 제외한

〈표 11〉 자극물의 표현방법

자극물의 표현방법	자극물의 형태
1 : 실물	실물이 실험에 직접 출현함
2 : 실물 사진	중형 카메라로 촬영한 1번의 실제 모델의 사진
3 : 흑백 선 그림 1	2번의 실물사진을 기초로 모델과 같은 등신으로 제작한 흑백 선 그림(얼굴 포함)
4 : 칼라 그림 1	2번의 흑백 선 그림 위에 실물사진의 의복 색과 비슷한 색상을 입혔음(얼굴 포함)
5 : 흑백 선 그림 2	실물사진보다 등신이 큰 도식화하여 제작한 흑백 선 그림(얼굴 포함)
6 : 칼라 그림 2	5번의 흑백 선 그림 위에 실물사진의 의복 색과 비슷한 색상을 입혔음(얼굴 포함)

〈표 12〉 본 조사의 인상차원 구조

(n=358)

의미미분척도	인상요인	요인 1 역능성	요인 2 사교성	요인 3 현시성	요인 4 평가성	요인 5 활동성
	요인부하량					
강하다-약하다		.841				
결단력 있다-우유부단하다		.833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802				
논리적이다-논리적이지 않다		.780				
의욕 있다-의욕 없다		.759				
지배적이다-복종적이다		.719				
이해심 있다-이해심 없다			.797			
다정하다-다정하지 않다			.786			
이타심 있다-이타심 없다			.714			
애정 있다-애정 없다			.679			
원만하다-원만하지 않다			.671			
세련됐다-촌스럽다				.858		
매력적이다-매력적이지 않다				.815		
현대적이다-고전적이다				.813		
눈에 띈다-눈에 띄지 않는다				.771		
외향적이다-내향적이다				.547		
예의바르다-예의 바르지 않다					.827	
정숙하다-정숙하지 않다					.765	
근면하다-근면하지 않다					.743	
좋은 사람 같다-좋은 사람 같지 않다					.617	
착하다-착하지 않다					.535	
생각이 깊다-생각이 얕다					.454	
활발하다 - 활발하지 않다						.852
활기 있다-활기 없다						.849
설명변량		4.47	3.66	3.36	2.99	1.98
설명변량 비율(%)		18.63	15.23	14.01	12.46	8.27
총 설명변량 비율(%)		68.6				

다른 4개의 인상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에 따라 자극물의 표현방법이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평가성 요인은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역능성, 사교성, 현시성, 활동성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역능성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도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상요인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역능성 요인에서는 흑백 선 그림 2가 가장 역능적인 것으로, 실물은 가장 역능적이지 않은 것으로, 실물사진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역능성 요인에서는 흑백 선 그림 2가 실물의 인상과 가장 차이가 나는 자극물의 표현방법임을 알 수 있다. 사교성 요인은 실물과 실물사진이 가장 사교적인 것으로, 칼라 그림 1은 가장 비사교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

〈표 13〉 자극물의 표현방법이 인상효과에 미치는 영향

(n=358)

자극물의 표현방법	인상요인	역능성	사교성	현시성	활동성
	F값	16.56**	10.14**	7.39**	10.37**
실물		-.607 C	.272 A	.678 A	.703 A
실물사진		.139 B	.446 A	-.074 BC	-.123 B
흑백 선그림1		.195 AB	.051 AB	.097 BC	-.459 B
칼라 그림1		.552 AB	-.609 C	-.131 C	-.140 B
흑백 선 그림2		.741 A	-.331 BC	.474 AB	.103 B
칼라 그림2		.504 AB	-.337 BC	.236 ABC	-.287 B

** $p < .01$, 표 안에 제시된 수치는 요인집수평균임.

A, B, C :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집단구분임.

서 사교성 요인에서는 칼라그림 1이 실물의 인상과 가장 차이가 나는 자극물의 표현방법임을 알 수 있다. 현시성 요인은 실물이 가장 현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칼라그림1은 가장 평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현시성 요인에서도 칼라그림1은 실물의 인상과 가장 차이가 나는 자극물의 표현방법임을 알 수 있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실물이 가장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른 자극물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성 요인에서는 실물의 인상과 다른 모든 자극물의 표현방법의 인상과는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모든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 연구결과가 실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인상형성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결과가 얼마나 현실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인상형성 연구에서는 실물이 가장 현실과 비슷한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착용자의 자세, 얼굴표정 등 비언어적 단서의 통제와 연구의 비경제성 등으로 인해 연구의 제약이 따르므로 인상형성 연구에서는 제작된 자극물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상형성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실제인

물의 인상효과와 얼마나 비슷하게 제작되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5종류의 자극물 표현방법 중에서 실물사진은 사교성, 역능성 인상차원에서 실물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극물의 표현방법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상형성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실물사진이 가장 많이 사용된 자극물이었는데, 본 실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실물사진은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 자극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착용자의 인상효과는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라 차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특히 실물은 현시성과 활동성 인상효과에서 다른 자극물의 표현방법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실물이 2차원의 자극물이 아닌 3차원적인 특성, 그리고 자극물에 대한 피험자의 직접적인 지각이 피험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실물출현은 착용자의 감정, 행동 등 비언어적 단서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흑백 선 그림 2는 역능성 인상과 현시성 인상에서 호의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도식화된 흑백 선 그림의 제작형태의 특성이 지각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Schneider 등¹²⁾이 제시한 대인지각

12) D. J. Schneider, A. H. Hastorf and P. C. Ellworth, *Person perception*(2nd ed.)(Mass., Addison-Wesley, 1979), pp. 250-271.

과정 중 1단계인 지각자의 단서의 선택이 선택적이라는 이론을 검증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외모와 자극물의 의복조합이 동일하다 하여도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인상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라 지각자가 지각하는 착용자의 인상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인상형성 연구에서는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자극물의 표현 방법에 따른 대인지각에서의 편파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극물의 표현방법은 평가성을 제외한 역능성, 사교성, 현시성, 활동성, 4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능성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도 자극물의 표현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극물의 표현방법은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적 변인임이 규명되었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 실물사진에 의해 전달한 인상, 흑백 선 그림이 전달한 인상, 칼라 그림이 전달한 인상 간에 발생한 인상효과와 차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따라라도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인상형성 연구에 있어서 착용자의 인상효과는 착용자의 외모 및 의복, 지각자, 맥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나, 이 때 자극물의 표현방법에 의하여 인상효과에 실험적 편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자극물 제작 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인상형성 연구에서 의복, 외모, 맥락과 같은 변인뿐만 아니라 자극물의 표현방법은 인상효과 연구결과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지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파에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후속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자극물을 가지고 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조사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명의 모델과 다양한 의복형태의 조합에 따른 실험적 검증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극물의 제작방법은 얼굴을 포함한 자극물로 제작되어 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얼굴과 의복변인을 분리하여 외모와 의복효과를 분리시켜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개정판). 서울:교문사.
- 강혜원, 이주현 (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권 1호.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디자인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 고애란 (1990). "Suit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애란, 이은미, 홍희숙 (1995). "남성장갑의 의복단서와 관찰자의 자기모니터링이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권 1호.
- 김인숙, 신소진 (1994). "신체 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권 4호.
- 김제숙 (1991).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여성노인의 의생활 양식과 관련지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제숙, 김희숙 (2002). "착용자 인상효과의 시간적 안정성." *복식문화연구* 10권 1호.
- 김희숙 (1992). "의복범주가 젊은이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이경희 (1993). "의복자극물과 제시 방법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7권 3호.
- 남미우 (1990).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의복 착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미우, 강혜원 (1996). "관찰자의 의복태도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권 2호.
- 남미우, 조정미 (1997). "한국 카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권 4호.
- 류숙희, 류지은 (2001).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이상적 여성상과 의복 스타일 선호."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 문영보 (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은, 임숙자 (1995). "의복의 적절성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학생의 캠퍼스 웨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2호.
- 방희선, 고애란 (1999).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권 11호.
- 이경화, 나수임 (1999). "의복의 인상형성이론에 대한 연구동향." *복식문화연구* 7권 1호.
-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 (1997). "의복 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권.
- 이미현, 임숙자 (1996). "성 관련 의복단서와 성 역할 정체감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여대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권 3호.
- 이선경, 고애란 (1995). "남성 의복 착용자의 의복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I)-직업추론 및 의복 인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2호.
- 이인자, 송선옥 (1982). "의복과 인물이 첫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권 1호.
-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 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6호.
- 이향미 (1995). "남자고등학생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 차립, 색 및 맥락의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1999). "복식무늬가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무늬종류, 형태, 배열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7호.
- 전호경, 황선진 (1998). "직장상황 입산부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이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6호.
- 정삼호, 강혜원 (1991).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I)-선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 조은영, 홍병숙 (1995). "여성의 신체 노출의 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학지사.
- 한미숙, 성화경, 유혜경 (1995). "면접상황에서 신체적 매력도와 의복이 여성지원자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9권 4호.
- Buckley, H. M. (1983). "Attraction toward a stranger as a linear function of similarity in dres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2 No. 1.
- Buckley, H. M. and Roach, M. E. (1981). "Attraction as a function of attitudes and dres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0 No. 1.
- Damhorst, M. L.(1990). "In search of common thread :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 Forsythe, S. M., Drake, M. F. and Cox, C. A. Jr. (1984). "Dress as an influence on management characteristics in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3 No. 12.
- Johnson, K. K. P. and Roach-Higgins, M. E. (1987). "The Influe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dress on campus recruiters' impressions of female job applica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6 No. 2.
- Johnson, B. H., Nagasawa, R. H. and Peters, K.(1977). "Clothing style differences : Their effect on the impression of sociabil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No. 1.
- Lapitsky, M. and Smith, C. M. (1981). "Impact of clothing on impression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writing ability." *Home Economics Research*

- Journal* Vol. 9 No. 4.
- Lennon, S. J. (1990), "Effects of Clothing Attractiveness on Percept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8 No. 4.
- Lennon, S. J. and Miller, F. G. (1984). "Salience of physical appearance in impression form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3 No. 2.
- Miller, F. G., Feinberg, R. A., Davis, L. L. and Rowold, K. L. (1982).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appear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0 No. 4.
- Minshall, B., Winakor, G. and Swinny, J. L. (1982). "Fashion preferences of males and females, risks perceived, and temporal quality of sty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0 No. 4.
-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No. 10.
- Schneider, D. J., Hastorf, A. H. and Ellworth, P. C. (1979). *Person perception*(2nd ed.). Mass. Addison-Wesley.
- Thurston, J. L., Lennon, S. J. and Clayton, R. V.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9 No. 2.
- Tversky, A. and Kahneman, D. (1971).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 Science* 185.
- Whisney, A. J., Winakor, G. and Wolins, L. (1979). "Fashion preference : Drawings versus photograph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 Workman, J. E. and Johnson, K. K. P. (1989). "The role of clothing in extended inferenc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8 No. 2.